

상처는 꽃이 되고 향기가 된다

월도베이커리 박숙이

소근소근 닳은 소리로 흘러갑니다.
먼저 온 물은 뒤에 온 물에게
자리를 선뜻 내어줄 줄도 압니다.
어디서든 왔건 간에 가파른 길 앞에서는
다들 하나로 뚫뚫 뭉칩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린 시냇물들은
뭉치는 마음부터 쌓아갑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듯이
저 어린 시냇물들도
각자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미 벼랑에서 떨어질 다짐도 한 것 같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강이 시냇물을 데리고 다정히 가는
뒷 모습을
-박숙이의 「시냇물」

‘시인을 만난다’

올해초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박숙이(44) 씨를 만나러 가는 내내 까닭모를 두려움이 가슴 한켠을 짓누른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구에 가까워 질수록 그 두려움은 서서히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다. 언어에 대해 예리한 감각을 지닌 시인의 삶을 글로써 표현해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감과 함께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인 앞에서 자신의 알팍한 내면세계가 해부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 물고기 앞에서 수영 시범을 보이는 사람의 심정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그런 두려움 이전에 시인이란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시인의 예리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결국 이런 막연한 이미지와 호기심이 이끌린채 조심스레 월도베이커리의 문을 들어선다.

시를 쓴다는 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시(詩)를 읽다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그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시인의 통찰력과 상상력에 감동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통찰력을 지닌 시인은 으레 예민하면서도 날카로운 성격의 소유자일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주는 박숙이 씨를 만나는 순간 그것이 한낱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시인에게 어린시절의 기억은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박숙이 씨 또한 예외는 아니다. 55년 경북 의성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8년 남짓 살았던 고향의 살가운 풍경은 어린 그녀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쫘므로 기억합니다. 백일장에 느티나무란 시제(詩材)가 주어지더군요. 전형적인 농가에서 자란 저에겐 아주 친숙한 소재였습니다.”

그 시로 백일장에서 입상을 한 그녀는 자신이 글쓰기에 남다른 재주가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학창시절 내내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박숙이 씨. 그러나 졸업 후 남편인 지진식(46) 씨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6남매 중 장남에게 시집간 그녀는 한 집안의 만며느리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생활하느라 좀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과점을 시작하게 되자 그녀는 가게일까지 함께 거들어야 했다.

그렇게 10여년이 흐른 뒤 어느날 그녀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생활에 쫓겨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제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건지 하는 회의가 들자 지난간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그녀에게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녀의 꿈을 상기시켜주는 일이 발생한다. 우연히 JC(청년회의소) 대구지부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수기를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오랜 시간 글쓰기를 중단했던 터라 망설이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제과점에서의 경험을 차분하게 글로 풀어낸 박숙이 씨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의 영예와 함께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



↑ 박숙이 씨는 현재 남편과 함께 대구 용계동에 서 월도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

빵에 관한 연작시 담은 첫시집 내고 싶어

그녀에게 있어 시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일상 속에 파묻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는 시를 쓰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되찾는다. 수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후 시를 쓰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신춘문예에 도전해 보려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도 심심찮게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92년 그녀는 대구 문학 아카데미 문예창작 과정을 수강하며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아내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과 시집식구들의 격려에 힘입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남편도 마침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박숙이 씨는 94년과 95년에 신라문학대상과 청구문학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올해 「시냇물」이란 동시로 '98 매일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모든 시는 동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동시 하면 아이들이나 읽는 시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는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시입니다. 맑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싶었지요.”

빵을 만들 때 발효의 과정을 거치듯 우리의 삶도 발효와 같은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인생의 깊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생활이 고달플수록 시는 더욱 살아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스린다. 아직까지 시집을 발간하지는 않았지만 2년 후쯤 빵집을 크게 확장하면서 빵에 관한 연작시를 담은 자신의 첫 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시는 현학적인 말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말로 쓸 때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을 줄 수 있지요. 문제는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시인의 통찰력은 사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을까? 처음 가졌던 부담감에서 조금쯤 벗어나 이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만 같다. [2]

<글/김경옥>